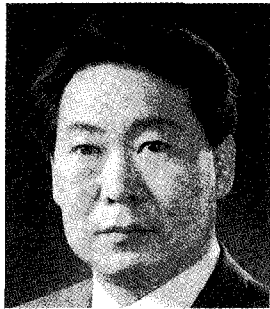


사료값 인상과 대책방안



윤 민 호

지리산낙농축협조합장

최 근의 소산업 분야는 매일 우울한 이야기들로만
 짐철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의 고름우유 파동에 이어 심각한 우유의
 소비둔화와 수입개방에 따른 모조 분유의 대량 수입
 에 따라 분유 적체 현상으로 낙농업계가 깊은 슬픔에
 빠진데 이어 광우병파동. 병든 소파동등 상상치도 못
 했던 여러일들이 발생하였고, 지난해부터 꿈틀거리던
 세계 곡물가의 상승은 급기야 금년도에서만 일본과
 대만의 사료가격을 35% 인상시키고, 우리나라에도 이
 미 13%의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된데 이어 또다시
 12%정도의 가격인상이 진행되고 있어 축산농가들을
 깊은 시름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곡물가격의 인상은 이미 예상되
 어져 왔던 일이고, 배합사료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축산은 사상누각에 불과
 했다는 것이 이번 곡물파동으로 여실히 증명 되는 것
 같다.

세계의 곡물 시장에서의 구매 부분에서 사는 시기
 와 가격에 관한 정보수집, 가격 예측에 따른 선물구매
 등 구매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수
 있다면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것들은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

며 장기적 측면에서는 외국의 사료곡물 의존도를 줄
 일수 있는 길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으며, 농가는 경
 영개선을 통한 사료 효율의 극대화로 유사비를 줄이
 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히 우리들이 사육하는 젖소는 풀을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 곡물을 사용하는 부문을 줄일수
 있는 길이 있으며, 이길을 잘 연구하고 다듬으면 상
 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 농가들은 비육우 부문에 있어서는 배
 합사료에다 볏짚만 던져주는 손쉬운 사양방법에 의해
 서 소를 키워왔고, 여기에 길들여져와서 또한 그렇게
 해서도 수지타산을 맞출수가 있어서 사료부문에 대한
 원가 절감이나 부산물의 이용등은 거의 생각지도 않
 았으며, 오히려 배합사료와 볏짚에 의한 사육이 인건
 비의 절감과 편한 축산으로 고정개념화 되어져 버려,
 배합사료를 배제한 다른 사육 방법은 금기시 되어져
 왔던 것이 현실이다.

젖소 부분은 젖소의 특수한 생리상 일부 농가에서
 T.M.R에 의한 사육방식이 채택되어져 왔으며, 그래
 도 사료작물의 재배에 의해 극히 일부의 조사료가 생
 산 이용 되었으며, 그나마도 외국의 비싼 조사료를
 수입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들의 젖소

사육 현황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의 현황과 지금부터의 축산현황은 많은 차이를 나타낼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쇠고기와 원유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요인도 완전히 사라져 버려, 어쩌면 앞으로의 상황은 지금보다도 더 악화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농가는 배합사료 회사만 쳐다보고 있으면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번 중국의 배합사료 공장을 돌아 보면서 돼지 90Kg 한 마리에 우리나라 돈으로 6만원 정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료가격을 물어 보았더니, 25kg 한 포당 6천원정도 간다고 하길래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90Kg 성돈 한 마리 가격보다 배합사료로 돼지를 키웠을 때 사료 가격이 훨씬 더들어 간다는 현실을 그사람들이 모를리 없는데 어떻게 사료공장이 돌아가나 하는 의아심을 느낀적이 있다.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어쩌면 우리도 곧 이같은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아무튼 늦은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산업은 가장 근본적인 사료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지금과 같은 외국의 사료곡물에 의존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될 수록 밀려오는 쇠고기와 유제품의 수입에 의한 가격하락과 솟아오르는 곡물이 폭등에 의한 사료가격의 인상 속에서 고사하고 말지 않겠나 하는 불안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은 문제의 해결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지만 사양방법의 개선과 부존원료의 개발및 사용에 의한 외국의 사료곡물 양을 줄이는 것과 또한 부득이한 경우 사료곡물을 도입 하되 값싸게 들여올수 있는 방법의 모색과 중간마진과 물류비용의 절감에 의한 우리농가에 도착시키는 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낙농가들이 사료문제에 심각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 닥칠 상황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매번 느끼는 문제이지만 우리 낙농가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 어려운 낙농을 언제까지 할것인가? 몇년하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만두지, 하는 자포자기식 사고방식을 가지는 예를 자주 본다. 사료문제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낙농의 기초를 새로 놓는다는 개념에서 접근이 되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각부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새로운 낙농의 개념을 정립 해야한다.

그동안 수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조성하였다가 방치해버린 초지도 재검토 되어져야 하고 조사료보다 경제적으로 값싸게 느껴져서 애용하고 모든 사양관리가 배합사료 위주로 되어있던 사양체계의 재검토도 이제 이루어 져야 한다.

아무튼 사료체계의 변화는 낙농의 혁명적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사료체계를 지금과 같이 곡물위주의 배합사료에서 탈피 하지 않는이상 우리 낙농업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이다.

본인은 여기에서 몇가지 우리 낙농업의 사료문제에 있어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 낙농업이 전업화와 전문화와 규모화의 길로 진진 한다고 가정할 때 사료체계는 T.M.R체제로 반드시 전환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T.M.R체계로의 전환은 보다 다양한 원료의 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원료의 개발과 부존자원의 이용의 길을 열어줄 것이며 소의 생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의 생리에 맞는 사료의 적용에 의한 한단계 높은 낙농업에 접근 할 것이다.

둘째로 사료부분의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사료의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세가 되어져야 하고 사료원료의 수입관세등 세제의 획기적 면세조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료원료의 수입선이 다변화 되어져야 하고 농민이나 농민 단체가 가축에게 먹일 순수한 사료원료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수출입이 자유로워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료곡물의 수입이 이권화되어 특정업

낙농육우산업 이대로가 좋은가?

체나 개인에 배정되는 양상을 띠어서는 실제 양축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많은 중간마진을 남겨줄수 밖에 없고, 또한, 이와같은 것은 결국 양축농민의 생산원가를 높이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사료원료에 대한 모든규제와 세제가 철폐되어야 우리 양축농민들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산비를 낮출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셋째로 식품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식품 부산물의 이용을 극대화 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선진화 하면 할수록 가공식품의 비율은 점점 높아질수 밖에 없다.

또한 식품을 가공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때로는 훌륭한 사료원료가 됨에도 폐기물로써 많은 사회문제까지를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감귤공장에서 나오는 껍피, 사과공장에서 나오는 사과박, 당근공장에서 나오는 당근박, 주정공장에서 나오는 주정박, 맥주공장에서 나오는 맥주박등 수많은 식품 부산물중 일부는 그대로 인근의 낙농가들이 이용해 왔으나 그 양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부터라도 이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자금및 세제 지원이 뒤따라야 할것으로 보인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맥주박도 여름철이 되면 처치곤란의 공해 물질이 되어져 버린다.

그러나 이것을 펠렛화 시켜만 놓으면 보존성이 양호한 훌륭한 사료의 원료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식품공장의 폐기물들이 거의 같은 것이다.

환경문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지원이 뒤따른다면 이와같은 공해물질이 훌륭한 사료의 원료로 둔갑될 것으로 확신한다.

넷째로 조사료 생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낙농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료포와 초지는 물론이지만 벼농사 위주의 우리나라 농업에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겨울 농사는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 따른 획기적 조치가 뒤따랐으면 한다.

특히 남쪽지방에서 호맥이나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

등을 재배하고 충분히 벼농사를 지을수 있는데 인적부족등 여러이유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 등으로 겨울농사의 길을 모색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며 특히 좀 늦게 파종해도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벼품종의 개발등이 이루어 진다면 우리나라 조사료 생산에 획기적 전환점이 올것으로 생각되며 조사료의 생산은 농후사료의 의존도를 낮춰줘서 결국은 소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섯째로 축산학회를 가지고 있는 대학과 정부의 각 연구기관과 시험소에서 사료부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농민들과 산학협동 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하고 정부에서 여기에 따른 연구비와 자재의 공급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료의 구입이나 이것을 먹이는 것은 농민들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먹이느냐 하는 것은 농민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같은 일들을 대학이 맡아서 해준다면 대학도 농민도 모두 이익을 볼수 있는 확실한 일이 될것이다.

본조합에서 건국대학의 객원섭 교수와 공동 노력하고있는 계분의 사료화는 이미 농장에 직접 적용하고 있으며 육성우 사료에 이미 30%를 섞어서 소를 키움으로써 사료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성공했으며 곧 필드에서의 결과가 취합되면 축산학회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아무튼 지금까지 두서없이 몇가지의 사료산업에 대한 개선점을 이야기 했읍니다만 분명한 것은 상승되는 국제 곡물가격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소산업은 가장 기초가 흔들리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처기능이 없다면 소산업은 몰락의 길로 갈수밖에 없으며 사료체제의 전환은 혁명적 사고방식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농가들의 진지한 토론과 노력과 실천이 뒤따라야만 사료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믿고 우리 낙농가들은 분명히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글을 마무리 한다. ☺

●필자 연락처:(0671)33-4541